미술 전시를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 '마시모레지나'가 최근 광주 북구 일곡동에 문을 열었다. /오지현 기자

청년 작가들 '기회의 장' 열렸다

광주 일곡동 '마시모레지나'
문화재단과 릴레이 전시 진행
내년 1월까지 지역작가 발굴
내달 31일까지 '스치면…' 전

"광주에는 상업갤러리가 많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갤러리 또한 들어갈 수 있는 작가군이 한정돼 있죠. 아무리 작품활동에 최선을 다한다지만, 생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꾸준히 할 수 없는 게 작가입니다. 특히나 청년작가들은 더욱더 그렇죠. 첫 시도라서 아직 부족하고 더 보완해야 할 것들도 많지만, '마시모레지나'가 청년작가들이 생존해 꾸준히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발판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광주 북구 일곡동에 오픈한 '마시모레지나' 외관

광주 일곡동에 레스토랑 '마시모레지나'가 문을 열었다. 얼핏 보면 다른 레스토랑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는 이곳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벽면에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이 걸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진입장벽이 높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비해 우리가 쉽게 찾아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을 방문해 다양한 미술 작품을 일상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갤러리 Ark'를 운영했던 허정 대표의 발상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하루.K 작가가 이를 광주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디어마이광주'와 연결시키자는 아이디어를 토대로 구체화됐다.

허 대표는 "광주 출신으로 지금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Co.MTUS의 조현일 대표님과 이야기하다 이 공간을 전시장으로도 활용해보는 것은 어떻겠냐는 아이디어가 떠올라 하루.K 작가님께 연락을 드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루.K작가님이 많은 청년작가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디어마이광주에 등록된 작가들을 토대로 그 영역을 확장해나가는 것은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셨다. 이에 광주문화재단과 손을 잡고 내년 1월까지 시범적으로 릴레이 전시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루.K 작가 또한 "같은 작품활동을 하는 작가로서 광주는 타 지역에 비해 작가들을 위한 상업 갤러리나 관련 공간이 부족하다"며 "시민들에게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동시에 비싸지 않은 가격에 이를 팔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것이 의미가 크다. '마시모레지나'를 토대로 광주 지역 미술시장이 더욱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선보인 마시모레지나의 첫 기획전시 주제는 '스치며 보이는'이다. 성혜림, 임현채, 정ㅁ승원 작가가 참여한 이번 전시에는 일상을 살아가는 작가들의 이야기가 작품 속에 고스란히 담겼다.

정승원 '8월의 AB'

성혜림 작가는 작가 본인이자 자신의 딸이기도 한 아이를 작품 속에 투영해 서로의 경험과 기억을 공유한다. 임현채 작가는 아이들이 놀다 방치한 사물이나 풍경을 통해 아이들을 키우며 느끼는 감정을 작품 속에 담아내며, 정승원 작가는 작품 속에 자신과 아이들을 그려내 일상의 소소한 기억들을 판화기법을 통해 그려낸다.

이번 전시는 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이후에는 박성완, 조선아, 하루.K, 백상옥, 이인성, 이진희, 서영실, 이세현, 손연우 작가가 참여해 자연, 기억, 추억, 일상, 풍경 등을 소재로 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하다' 오는 11일 5·18광장 개최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하 재단)이 오는 11일 오후 6시 30분 5·18 민주광장에서 '2022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하다' 축제를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융합예술축제는 위기의 시대 집단 지성에게 길을 묻고 시민들과 함께 해답을 모색해가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축제는 전통연희놀이연구소의 타악과 춤이 어우러진 '대동의 춤_무등공명'을 시작으로 김민웅 전환행동 대표와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가 '민주주의, 광주 그리고 언론'을 주제로 시민들과 우리 사회의 언론지형 문제와 민주주의와 언론의 관계 등을 논하는 토크쇼를 진행한다. 이어지는 '대동의 춤_Love&Peace'에서는 최보결 안무가와 오월어머니들이 시민들과 함께 광장에서 치유의 춤을 춘다.

이와 동시에 '오월정신 릴레이아트'도 펼쳐진다. 릴레이아트에는 시사만화의 대가 박재동 화백과 고경일 교수, '세월오월' 민중화가 홍성담, '일제를 빛낸 사람들'의 이상호, 한희원 등 50여 명의 작가들과 공모를 통해 참여한 시민작가(가족) 12팀이 '광장민주주의-158610'을 주제로 한 걸개그림을 전시한다. 밤 9시 30분부터는 '민주시민캠프'가 문형식 DJ와 함께 '응답하라 1980'을 주제로 LP디제이쇼를 개최한다. /오지현 기자

남도국악원 '별난 각시' 공연 오는 11일 국립민속국악원

국립남도국악원은 11일 오후 5시 국립민속국악원 초청 창극 '별난 각시' 공연을 개최한다.

별난 각시는 안동 하회 '각시탈'을 소재로 한 창극이며 하회별신굿에서 마을을 지키는 서낭신의 전설을 새롭게 해석해 신(神)이 된 각시의 이야기를 담았다.

옛이야기 중 대표적인 여성 캐릭터로 춘향과 심청 등이 있었다면 별난 각시에서는 두려움에 맞서 끝까지 역병과 싸우며 의술을 펼친 주인공(진이)을 통해 그동안 만나보지 못한 새로운 여성 영웅의 탄생을 확인할 수 있다.

별난 각시는 서연호(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의 원작 창극 각시탈을 극작가이자 배우인 홍원기가 각색과 연출을 했다고 남도국악원은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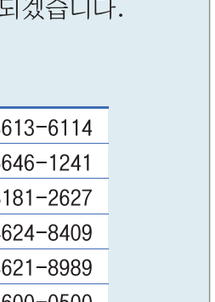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홈페이지(http://jindo.gugak.go.kr)를 참고하면 된다. /최진화 기자

이번주 개봉영화

◇브로커=늘 빚에 시달리는 상현과 베이비 박스 시설에서 일하는 동수. 어느 날 밤, 그들은 베이비 박스에 놓인 한 아기를 몰래 데려가지만 이튿날 생각지 못하게 엄마 소영이 아기를 찾으러 돌아온다. 한편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형사 수진과 후배 이형사는 이들의 뒤를 쫓는다. 고레아다 히로카즈 감독. 송강호, 강동원, 배두나, 이지은, 이주영 주연. 상영시간 129분. 8일 개봉.

◇이공삼칠=열아홉 윤영은 엄마와 단 둘이 살며 아르바이트를 하며 검정고시를 준비한다. 그러나 뜻밖의 사고는 윤영을 피해자에서 살인자로 돌변시킨다. 더 이상 절망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10호실 동료들은 윤영을 지켜주기 위해 희망의 손길을 내민다. 모홍진 감독. 홍예지, 김지영, 김미화, 황석정, 신은정, 전소민, 윤미경, 정인기 주연. 상영시간 126분. 8일 개봉.

◇윤시내가 사라졌다=전설적인 가수의 실종으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20년 간 이미테이션 가수 '연시내'로 활동해온 순이는 무대도, 일자리도 잃어 좌절에 빠진다. 한편, 사람들의 관심이 고픈 유튜버 짱하는 라이브 방송 중 우연히 찍힌 엄마 '연시내' 영상 조회수가 떡상하자 대박 콘텐츠를 꿈꾸며 '윤시내'를 찾는 여정에 따라 나선다. 김진화 감독. 이주영, 오민애, 노재원, 김재화 주연. 상영시간 107분. 8일 개봉.



◇베르네 부인의 장미정원=프랑스 최고의 원예사 에브 베르네는 대를 이어 장미정원을 운영해오고 있으나, 장미를 공산품 취급하는 사업가 라마르젤에게 밀려 명성과 고객은 물론 자신의 정원까지 모두 빼앗길 위기에 처한다. 피에르 피노드 감독. 카트린 프로, 찻사 부야메드, 올리비아 코트, 마리 페티어트 주연. 상영시간 95분. 9일 개봉.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시·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98 (사동)
기사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i1000@hanmail.net